

학교상담에서의 연계과정에 대한 상담자의 경험*

임은미(任銀美)**

논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상담자들이 학교 상담 현장에서 경험하는 연계활동 경험의 내용과 과정을 탐구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상담 종사자 23명을 3집단으로 나누어 포커스 집단 면접을 실시하고,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학교청소년 상담자의 연계 경험은 131개의 의미단위, 58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패러다임 분석 결과 학교상담 연계사업의 중심현상은 '주저하면서 연계를 실행함', 인과적 조건은 '연계의 필수화', 맥락적 조건은 '연계하라는 압박과 장애의 갈등', 중재적 조건은 '연계의 순기능과 역기능 경험', 작용/상호작용은 '다양한 연계활동', 결과는 '효과적인 연계체제 구축 희망'이었다. 선택적 코딩 결과 학교 상담 연계사업의 핵심 범주는 '학생중심 연계를 목표로 여건성숙을 기다림'으로 나타났다. 연계사업의 과정은 연계압박 인식 단계, 시행착오 단계, 연계역량증진 단계, 연계실시 단계, 개선방안추구 단계로 이루어졌다. 학교상담자들의 직접적인 진술을 통해 추출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서, 학생중심 연계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교상담, 연계, Wee 센터, Wee 클래스, 포커스 집단 면접, 근거이론

I. 서론

연계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담자와 다른 전문가를 만나게 해 주는 활동이다. 연계가 학교 상담분야에서 주요 이슈가 된 것은 내담자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는 상담교사 만의 노력이 아니라 교내외 자원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 본 연구는 임은미 외(2013)의 보고서 중 면접결과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는 종합적 생활지도와 상담 모형에서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Gysbers & Henderson, 2001). 1980년대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는 격언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지역사회 운동 또한 학생 상담에 연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도록 하는 실천의 길을 터주었다(이상균, 2002; Clinton, 1996). 우리나라 연계사업의 본격적인 시발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도로 2006년부터 시행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CYS-Net)였다(김동일 외, 2008).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지원체제를 학교 안에서 위기학생에게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위기를 학교 내에서 극복하고 재적응하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학교 상담에서의 연계사업이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해결과 성장에 필요한 전문 자원을 폭넓게 탐색하고 전문성을 검증하여 내담자를 '의뢰'하면서 '연계'가 이루어진다. 상담자는 스스로가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담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시작된 상담관계인 경우는 즉시 종결하여야 한다(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상담학회, 2011). 이는 소극적으로는 내담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한 개입을 실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다 적절한 전문가에게 내담자를 의뢰함으로써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으로 충분한 도움을 줌으로써, 내담자가 받는 혜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상담자는 다른 전문가에게 내담자를 연계하면서 지금까지 내담자와 맺어오던 전문적 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고, 자신과 내담자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내담자가 새로운 전문가로부터 얻는 도움을 자신의 삶에 통합하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박미나, 2012; 오경자 외, 2009; Lalor et al., 2006; Lim & Adelman, 1997; Tsai & Ray, 2011).

연계는 내담자 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내담자를 둘러싼 체제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며, 상담자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담자는 그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다양한 개입체제에 접근할 수 있다. 학교상담 장면에서 연계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상담자가 가정과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자로서 활동하면서 학생을 상담하는 역할의 확장(role expansion), 연계업무 위한 인적자원 보충을 통한 조직의 확장(organizational expansion), 외부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네트워크 체계의 보충(system supplementation), 학교와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동반자적인 관계 형성(system partnership) 등 개인적인 접근과는 다른 여건들이 필요하다(이상균, 2002; Lai-Yeung, 2014). 변화의 초점을 내담자 개인으로부터 체제로 옮기려는 시도는 가족치료의 체계적 접근과 여성주의 치료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Corey, 2009), 다문화 상담의 물결에서 더욱 강조되었고(Sue & Sue, 2008), 최근에는 사회정의 상담의 개념을 통해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Lewis, 2011). 다양한 개입체제의 예에는 가족, 복지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 등 내담자의 문제 해결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지역 사회 조직들이 폭넓게 포함된다(Cox & Lee, 2007).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 상담은 Wee프로젝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교육부가 2007년부터 학교 폭력, 집단 따돌림, 자살, 학업중단 등 심화되고 조기화되는 학생 청소년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상담망을 구축하고자 한 결과이다. Wee 프로젝트는 학교에는 Wee 클래스, 지역교육청에는 Wee 센터, 시도 교육청에는 Wee 스쿨의 통합적인 학생안전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현재 전국에 Wee 클래스 5,107개, Wee 센터 160개, Wee 스쿨 7개소가 설립되었다(www.wee.go.kr). 현재 학교에 설치된 Wee 클래스에는 상담자 1명,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 센터에는 상담자·임상심리사·사회복지사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다(최상근 외, 2011).

학교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문 인력이 필수적이면서도, 문제의 유형과 심각도에 따라, 의료지원, 법률지원, 안전지원 등 타분야 전문가와의 분야 간 협력도 필요하다(박효정, 2006; 권해수, 류진아, 2007; Gysbers & Henderson, 2001; Lalor et al., 2006; Tsai & Ray, 2011). 특히 학교상담의 주요 서비스 대상이 위기학생이라는 점에서, 학교상담의 현장에서 연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학생이 경험하는 위기의 강도가 강하고 지속기간이 길어질수록, 예방교육이나 심리 상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류진아, 권해수, 2008). 위기(at-risk)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로서, 학생에게는 외현화 또는 내면화된 문제의 형태로 나타나고, 위기학생은 개인·환경적 위협에 노출되어 행동·심리적으로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적절한 개입 없이는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기 어렵다. 위기학생에게는 가출, 학업중단, 폭력, 성매매 및 성폭행, 임신, 약물오남용 등의 비행 및 범죄, 우울 등 심리적 장애, 자살 위험이 높아지기도 한다(구본용, 2005). 이에 대하여 최근 이루어진 한 설문조사에서는 Wee 센터 종사자의 90.8%, Wee 클래스 종사자의 95.5%가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임은미 외, 2013).

지금까지 우리나라 학교 상담에서 연계가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문제 영역은 학교폭력이었다(금명자 외, 2005; 이민희, 2006; 이병환, 2010).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의 연계사업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관여된 학생의 문제가 심각할수록 상담전문 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게 되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금명자 외, 2005; 박효정, 2006; 이병환, 2010; 이성희, 2000). 그러나 연계사업이 필요한 문제의 영역은 학교폭력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Tsai & Ray(2011)의 연구에서는 학대, 정서, 학업, 가족관계, Lim & Adelman(1997)은 수업집중, 전환지원, 가족참여 등을 주요 연계문제로 다루었다. 우리나라 학교 상담자들이 연계하는 문제의 영역은 폭력이나 비행 등 외현화 문제 뿐 아니라 정신질환, 학습, 진로, 신체질병, 물질적 지원 등 다양하였고(임은미 외, 2013), 연계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권해수, 김현정, 2013).

이와 같이 연계사업은 학교 상담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 밝힌 우리나라 전문상담교사의 직무내용에도 '전문가 의뢰'(유순화, 류남애, 2006), '조정'(강진령 외, 2005 a b), '자문'(금명자, 2007), '체제지원'(허승희, 박성미, 2004)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상담자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유형근(2007)은 미국의 교육실습 제도인 CACREP과 우리나라 상담자 실습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면서, 미국의 상담자 실습교육에서는 상담자 실습교육과정에서 '의뢰'에 익숙해질 기회를 가지기, 지역사회 조력자들과 사례협의회 하기 등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상담교사의 교육실습 과정에서는 연계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음을 지적하며, '지역사회 전문가와 사례 협의하기' 등 연계업무에 대비하는 내용들을 다룰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연계사업이 학교상담자가 관심을 갖고 수행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상담 분야에서 연계사업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상담자들은 훈련과정 동안 '연계'에 대한 훈련을 덜 받은 상태로 학교상담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학교 현장에 들어가면 연계사업이 필요한 사례들에 직면한다(임은미 외, 2013). 학교 상담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은 사회복지사의 일로 간주되어 왔지만, 복잡하고 긴급한 위기 사례를 다루는 데는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세부적인 역량에 대한 파악 및 효과적인 연계 구성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므로 상담자의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이루어진 연계사업에 대한 연구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였거나(금명자 외, 2005), 학교폭력(박효정, 2006)과 사회복지 업무를 중심에 두고 연계방안을 정리하였고(이병환, 2010; 이성희, 2000), 학교 상담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않았다. 권혜수, 류진아(2007)의 연구는 학교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학교 청소년 상담에서의 연계방안에 직접적인 자료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구이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 제도는 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이후로 학교상담은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청소년상담사로서 근무하던 시기의 연계사업을 토대로 현재의 연계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학교 상담 실무를 맡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대상으로 학교상담에서 진행되는 연계의 경험과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는 FGI(포커스 집단 면접: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서 수집하고자 한다. FGI는 특정 집단이 지각하는 문제의 의미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며(Bloor, et al., 2001), 연구자들에게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하여 주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에(Morgan, 1998), 연구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에 관심이 있는 경우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상담의 연계사업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각기 다른 입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Wee 센터 근무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사회복지사와 Wee 클래스 근무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각기 다른 입장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자 한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각 기관 간 연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양한 입장의 현장 실무

자들에게서 직접 듣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들이 학교상담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연계사업의 중심현상은 무엇인가 ?

둘째,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연계사업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무엇인가 ?

셋째,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연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학교상담의 연계사업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가 ?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2013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전국의 87개 Wee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계사업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은미 외, 2013)를 바탕으로 실제로 연계사업을 실시해 본 경험이 있는 Wee 센터 근무인력 중 면접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연계사업 실시 실적 순서와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상위 순위의 센터부터 전화로 접촉하여 연구에 초대하였다. 접촉한 Wee 센터 근무자 대부분이 면접 참여에 동의하여, 목록의 상단에 있는 센터들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로부터 근무 지역의 단위학교 Wee 클래스 중 연계사업이 활발한 학교들을 소개받았다. 소개받은 Wee클래스와 연락을 취하여 면접참여의사가 있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발하였다. FGI의 최종 참여자는 아래와 같이 총 23명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집단	소속기관	고유번호	성별	직위	연령	근무지역	인원
1	Wee 센터	1	남	전문상담교사(실장)	30	도시	3명
		2	여	전문상담교사(실장)	27	도시	
		3	여	전문상담사	38	농산어촌	
	Wee 클래스	4	여	전문상담교사	29	도시	6명
		5	여	전문상담사	57	도시	
		6	여	전문상담사	39	도시	
		7	여	전문상담사	27	도시	
		8	여	전문상담사	41	농산어촌	
		9	여	전문상담사	24	농산어촌	

2	Wee 센터	10	여	전문상담교사(실장)	37	도시	4명
		11	여	전문상담사	43	도시	
		12	남	전문상담교사(실장)	49	농산어촌	
		13	여	사회복지사	45	농산어촌	
	Wee 클래스	14	남	전문상담교사	53	도시	4명
		15	여	전문상담교사	30	도시	
		16	여	전문상담사	47	농산어촌	
3	Wee 센터	17	여	전문상담사	31	농산어촌	
		18	여	전문상담교사(실장)	53	도시	
		19	남	전문상담사	29	도시	
	Wee 클래스	20	여	전문상담교사	44	농산어촌	3명
		21	여	전문상담사	47	도시	
		22	여	전문상담교사	34	농산어촌	
		23	여	전문상담교사	44	농산어촌	
총 인원							23명

2. FGI 실시

1) 면접질문지 구성

면접 질문지는 청소년상담이나 학교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진 연계사업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연계사업 실시 경험, 연계사업 실시 이유와 영향, 연계사업 효과증진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반구조화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연계사업 실시경험

- 연계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
- 관내에 연계 가능한 기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과 어떤 내용의 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
- 연계할 전문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언제였습니까 ?
- 연계사업을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2) 연계사업 실시 이유와 영향

- 학생상담을 하면서 연계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언제입니까 ?

- 연계사업 도중에 경험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연계를 하여 학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았습니까 ?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연계사업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3) 연계사업의 효과증진 방안

- 연계기관의 어떤 특징이 문제해결에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으로 보입니까 ?
- 연계 사업 진행 도중 효과적인 절차나 방법을 발견하였다면 어떤 것입니까 ?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십시오.

(4) 기타

- 현재 연계사업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타 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방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2) 면접 실시

대면 면접을 실시하기 일주일 전에 예비 참여자들에게 면접 질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집단구성은 Morgan(1997)의 권유를 참고하여, 연구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학교상담이라는 동질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서로 간에 입장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집단에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서울, 충청, 호남 지역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면접 참여에 따르는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되, 다양한 지역이 한 집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3개 FGI 집단을 구성하였다. 면접 실시 직전 연구목적과 비밀보장의 원칙, 대답하지 않을 권리, 중간에 연구 참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후에 면접을 시작하였다. 집단별 면접 시간은 2시간 30분 내외였다.

3) 자료 분석

면접 자료를 전사하여, 근거이론 방법의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실시하였다. 박승민 외(2011)의 제안에 따라 개방코딩 과정에서 원자료를 분해하여 이를 개념화할 수 있는 의미단위를

찾고 여러 의미 단위들 중 서로 관계가 있거나 유사한 것들을 하위 범주로 묶고 유사 하위범주를 유목화하여 범주를 구성하였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범주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연계의 중심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배치하여 연계사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선택 코딩의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명명하고 이야기운곽을 기술하면서, 연계사업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Guba & Lincoln(1981)의 제언을 참고하였다. 연구결과의 사실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면접을 실시하기 전에 학교폭력 상담에서의 연계사업 관련 부분에 대한 문헌 자료들을 탐독하였다. 또한 Wee 센터와 Wee 클래스 수퍼비전에 수퍼바이저로 참여하면서 현장의 연계사업 진행 현황을 학습하였다. 적용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 1인, 전문상담사 1인에게 자료 분석 결과를 검토 받았다. 이들은 자료의 내용 중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항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상담의 맥락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적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 상담학 박사 2인과 함께 분석내용을 검토하였다. 검토과정에서 제 3의 연구자가 동일한 자료를 보았을 때 상이한 해석을 내릴 가능성이 큰 하위범주와 범주의 이름들에 대한 수정작업을 거쳤다. 중립성 확보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면접과정에 연구보조원 2인이 동행하여, 녹음과 메모를 하였고, 전사한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의문 나는 내용에 대한 토의를 거쳤다.

3. 원자료 분석 결과

원자료에 대한 개방코딩 결과 학교청소년 상담자의 연계 경험은 다음과 같이 131개의 의미단위, 58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 개방코딩 결과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모든 학교가 전수조사 후 위센터로 연계함. 퇴근 시간에 연계 전화가 많이 걸려옴. 많은 부모/학생들이 조사 결과로 불안해 함. 위센터 일이 위기학생, 특별교육, 정서행동, 교권침해 등 자꾸 불어남.	위클래스에서 위센터로 연계를 너무 많이 함	연계사례 폭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 폭주로 두세달 기다림. 기다리다 지친 부모가 변심하여 상담 안 받음. 기다리다 아이가 졸업함.	연계 후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음	
학교에 불만이 있어서 위센터로 바로 오는 학부모도 있음. 학교폭력 신고해도 학교에서 반응이 없으니 위센터로 옴.	학교 거치지 않고 오는 사례도 많음	

화장실 갈 시간도 안남.		
특수학생, 정서행동 전수조사, 학교폭력, 중도이탈, 학업중단, 기초학력 문제가 상담자에게 넘어옴.	학교마다 상담자가 하는 일이 너무 많음	연계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케어해야 할 학생이 너무 많음.		
학교가 전문상담사를 못 믿음. 학교는 일 터질까봐 빨리 연계하라고 함. 학생이 상담자랑 맞지 않는다고 거부함.	전문상담인력이 상담현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함	
경제적인 지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음. 기초학력미달 중 정서문제 아닌 경우가 있음. 병원, 약물이 필요한 사례가 있음. 임상심리사의 진단이 필요한 사례 있음.	여러 전공의 협조 필요	사례관리에 여럿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
위센터에는 위클래스에 없는 검사지가 있음.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무료/저렴한 비용의 검사 가능함. 사업비 예산이 200만원에 불과함.	학교상담기관의 물적 자원 제한	
갑자기 우는 사례 감당 못하겠음. 자해가 심하거나 자살 시도 사례가 많아서 당황스러움. 전문상담사의 전문상담지식과 기술 수준이 낮음.	심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상담자가 역부족임	
학생에게 위험이 닥칠까봐 불안이 컸음. 연계 안하고 버티는 동안 힘들었던 1년 전 기억이 아직도 생생함.	혼자 감당하느라 큰 스트레스를 겪었음.	
난생 처음 보는 문제가 많음. 성공사례가 없음. 학생이 상담자랑 안 맞는다고 거부함.	독자적인 사례관리에 자신이 없음	
경력없는 전담자는 연계 대상 기관에 대해 너무 모름. 공문서 사이트에 접근권한 없어 전문기관정보 공문을 볼 수 없음. Wee클래스에는 연계정보가 적음.	연계정보가 공유되지 않음	정보부족으로 인한 연계 곤란
네트워크나 정보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어 있음. 무료놀이치료 기관이 있다는 것을 몰랐음.	정보를 몰라 연계를 하지 못함	
정보를 줘도 어떤 학교는 잘 활용하지 못함.	초보상담자는 정보 활용에 소극적임	
나 혼자 다 알아서 네이버 쳐서 일일이 알아봐야 함. 누군가 찾아주고 연결해 주면 좋을 것 같음. 연계작업 하려면 부모님과 소통, 전화, 동의서 등 일이 많음. 점심시간에 주로 해야 함.	연계에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	연계작업의 수고로움
연계에 신경 쓰면 상담에 집중할 수 없음. 상담업무도 바쁜데, 연계해달라고 전화해서 물어보기 어려움. 상담사는 상담해야 하니까 연계가 너무 힘들. 위센터 한정 인력으로 연계 부분까지 담당하기 어려움.	연계가 필요하지만 상담과 병행하기 어려움	
부모님은 병원 안간다하고 위센터는 안 받겠다 하여 힘들었음.	연계 당사자간 갈등조정이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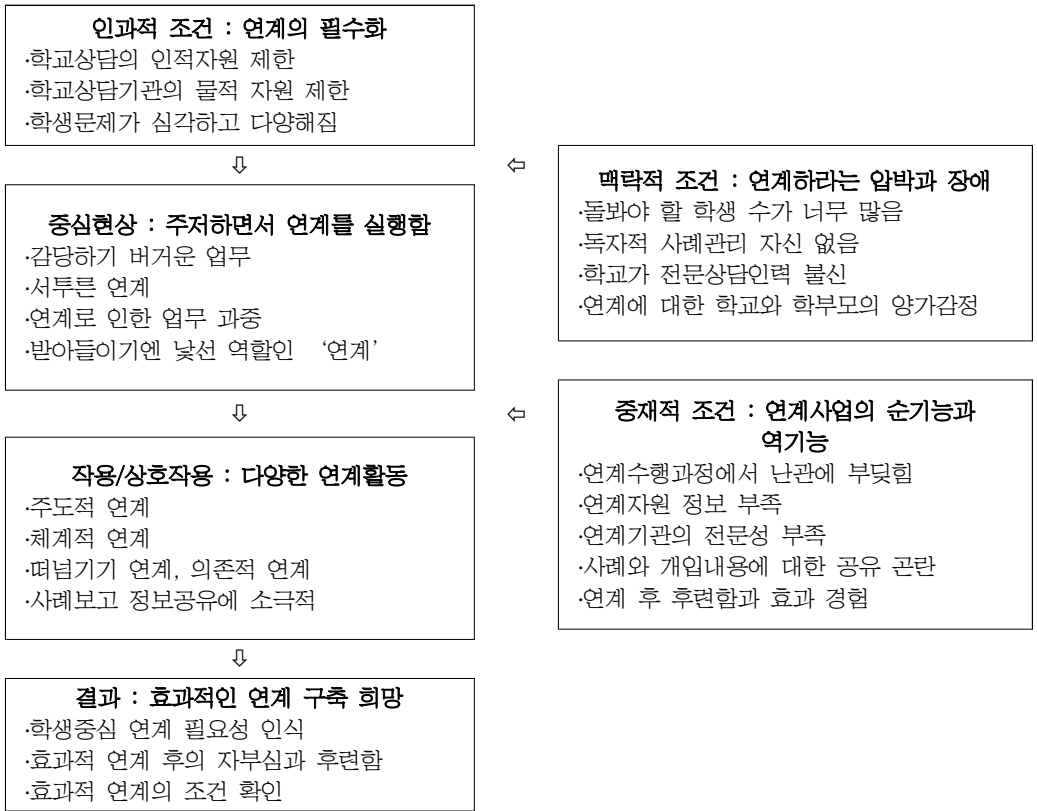
차 없고, 배차간격 길고, 멀고, 시간 많이 걸림. 경운기도 없어서 갈 수 없다는 학부모가 있었음.	지리적으로 연계하기 열악함	연계 자원 부족
위센터는 멀어서 안가고, 복지센터가 가까워서 거기로 감.	먼 기관에 연계하기 어려움	
소속 기관 주변에 연계 기관이라고는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만 있음. 대학교 상담센터가 있긴 하지만 비용이 발생함.	연계기관이 주변에 없음	
병원에 연락했다가 인원이 꽉 차서 안 된다고 거절 받음.	연계기관의 수가 부족함	
동사무소에 연계, 경제적인 지원이나 도움 받으며 상담함. 자원봉사 교육시키고 관리하여 사용함. 대학에서 상담심리학과 실습시간 2학점 주는 것과 연계하였음.	위프로젝트 이외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다양하고 주도적인 연계 시도
학생이 안가서 의사를 학교로 불렀음. 00교육청은 변호사를 고용하였음.	연계자원을 위프로젝트 안으로 끌어 들임.	
경력이 쌓이면서 연계기관 정보를 알게 됨.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징을 잘 알게 됨.	방법을 알고 연계하게 됨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못 보냄. 의사 싫고 병원 싫다고 함.	연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심리적 저항	연계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망설임
행정절차 복잡하다고 싫다고 함.	복잡한 연계 절차에 대한 학부모의 저항	
비밀 보장 정도를 의심함. 설명해드려도 믿지 않음. 상담기록부를 돌려 달라고 함.	비밀누출에 대한 학부모의 염려	
학교에 말하면 왕따당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함.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보험도 안된다고 함.		
학교에 알려질까봐 부모님들이 싫어하여 Wee 센터로 못 보낸다는 경찰관이 있었음.	학교에 알려지는 것을 싫어함	
연계기관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함. 유료기관을 소개받으면 의아해 하는 학부모 있음.	연계를 위해 개인적인 비용 지불하도록 하기 어려움	
교육청에 알려질까봐 위센터로 안 보내고 복지센터로 보내는 교사가 있음.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함. 연계가 필요한 사례이지만 외부로 정보 나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못 보냈음.	비밀 누출에 대한 학교 측의 저항	연계에 대한 학교측의 망설임
수업결손 때문에 학교장이나 교사가 학교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림.	학교 밖 연계에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학교측의 염려	
인솔교사가 따라붙으면 업무공백이 생긴.		사례회의와 동료 슈퍼비전의 필요성
연계할 때 사례회의로 공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사례회의 시간 마련이 불가함.	사례회의의 필요성과 어려움	
교수 슈퍼비전에다 동료 슈퍼비전이 함께 진행되어야 함.	동료 슈퍼비전의 필요성	

연계기관에서 어떤 개입을 했는지 보고 하지 않음. 무료기관 연계하고 나서는 어떤 개입을 했는지 물을 수 없었음.	연계기관에서 사례 보고 하지 않음	사례정보 공유 곤란
교육받았다는 이수증도 학생들에게 받다보니 수거에 어려움이 많음.	기간간 연계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음	
사례에 대한 정보를 연계기관에 주지 않았더니 연계기관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 중학교 때 상담 기록을 고등학교 때 공유할 수 없어 학생이 같은 이야기 반복함. 자료를 왜 달라 하는지 이해가 안 됨.	연계기관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 평가	연계기관에 대한 실망
유료기관 연계해 줬더니, 돈만 날렸다고 학부모가 화를 냄. 연계기관에 가서 아이가 더 나빠졌다고 항의함.	연계기관의 무성의한 대응	
1388에 아이를 데려다 줬더니 담당자가 없었음. 전화 연락도 두절됨. 연계를 했더니 와서 논문 설문지를 하고 있었음.	연계기관의 서비스 질이 실망스러웠음	
연계받은 기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음.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없었음. 정신보건센터에서 병원으로 바로 보내 버리니까 황당했음. 정신보건센터에 임상심리사가 없었음.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케어는 안했음.	연계기관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움	
다른 기관에서 도움 받을 게 없음. 위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만 있음. 연계하는 사람들의 상담수준이 의심스러움. 정신과 의사도 좁은 범위의 문제에만 전문적인.	연계 이후 관리 어려움	연계 후 사례관리 곤란
예약하고 진료 받은 것까지 확인 했는데 그 뒤로 관리 못했음. 연계 이후 사례보고 받지 못함.	연계 이후 사례관리가 됨	
사례보고서를 주도록 되어 있는 센터가 있음. 아이 데리고 가서 연계기관에 이것저것 물어 봄.	연계절차 없어서 학생이 방치됨	
담임에게 연계했더니 위클래스로 위클래스는 중독전문 아니라고 계입과 몰입센터 소개, 거기는 연락이 안 됨. 연계하더니 실적을 본인기관으로 하겠다고 하여 거절했음.	실적 경쟁	연계사업에 대한 역할수용 갈등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상담교사가 연계하라고 하니 어색함.	위센터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함	
학교에서 사건이 나면 편하게 도움 청할 수 있는 곳이 위센터 여야 함. 위센터가 자문을 해주는 일을 해야할 것 같음. 학생들 커가는 모습을 쫓 볼 수 있는 곳이 위센터임. 연계를 한다해서 한 번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 결국 위센터로 다시 오게 됨.	위센터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조성되고 있음	
작년부터 판 데 전화하라는 소리는 안하고 있음. 무엇이라도 알아봐 줌.	사용하기 적절한 매뉴얼이 없음	명확하지 않은 연계절차
매뉴얼이 없으니까 기초자료부터 매번 다시 찾음. 매뉴얼이 있어도 일반적인 내용이면 따라하기 어려움. 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함(추행은 안 된다, 청소년은 안 된다 등). 정해진 자문단이 있고, 위탁임에서 걸려줘서 거절 안 받도록 하면 좋겠음.	자문단과 코디네이터가 없어서 헤멤	

<p>특수아동이나 성폭력 사안이 오면 곤란함. 기초학력미달자 의뢰하면 막막함. 학교폭력 가해자 특별교육은 상담과 성격이 다름.</p>	<p>전문영역을 벗어나는 의뢰를 함</p>	연계 남용과 의존
<p>위클래스에서 뭔가 해보지 않고 의뢰함. 너무 단순한 문제조차 연계함.</p>	<p>무작정 의뢰를 해 옴</p>	
<p>책임 회피를 위해 위센터를 끌어넣는 느낌이 있음. 위센터에 넘기고 잘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해버림.</p>	<p>위센터에 의존하는 위클래스가 있음</p>	
<p>연계 하고 나면 속이 후련함. 솔직히 위센터로 그 집이 다 갈 걸 생각하면 미안함. 연계하면 일손을 덜 수 있음.</p>	<p>의뢰하고 나면 부담이 가벼워짐</p>	연 계 의 긍정적인 결과
<p>임상심리사가 검사 해준 결과에 대해 학부모가 만족했음.</p>	<p>연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p>	
<p>임상심리사의 검사결과를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었음. 법률기관 경찰청과 기관간 연계를 하여 효과적이었다고 칭찬받았음.</p>	<p>연계하여 체계적인 개입 가능했음</p>	원 만 한 연계사업의 조건
<p>위탁기관이 정해져 있고, 일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함. 연계병원에서 할인해주고, 학교에서 지원하고, 나중엔 학부모가 부담함.</p>	<p>예산이 있어서 연계를 활발하게 할 수 있었음</p>	
<p>전문성 있는 연계기관에는 마음 놓고 연계함.</p>	<p>연계기관의 전문성이 중요함</p>	
<p>구두로 연계하면 책임감을 덜 갖는 것 같음. 의뢰양식을 사용하면 명확히 책임이 정해짐. 진행소견이랑 보완서류를 넘기면 책임 있게 진행함.</p>	<p>문서로 의사소통하면 책임감이 강해짐</p>	
<p>위센터에서 유관기관 전화번호와 상담 전문영역 연락처를 공문으로 보내줘서 좋았음. 지역사회를 꿰뚫는 복지센터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도움을 받음.</p>	<p>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됨</p>	

Ⅲ. 연구결과

개방코딩결과 나타난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들을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재정리한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학교상담 연계사업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1. 중심현상 : 주저하면서 연계를 실행함

학교상담에서 상담자들이 연계사업에 대하여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주저하면서 연계를 실행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선 연계를 안 하자니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고(A), 서투른 연계(B), 연계로 인한 업무과중(C), 받아들이기엔 낮은 역할인 ‘연계’(D) 등으로 인해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주저하면서 연계를 실행하는(E)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A: (숫자도 많지만) 우리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오기도 하고, 너무 심각한 문제가 오기도 해요(참여자 2, 10).

- B: 다른 학교 아이인데, 상담하게 되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했더니 위클래스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전화했더니 증독은 자기 전문이 아니고 그것도 전문기관이 있다 그래서 계임과물입센터를 연계시켜줬는데 또 연락이 안 돼서 위센터에 전화했고, 이렇게 뱅뱅뱅 돌다가 지금 너무 극한에 치달아서...(참여자 22).
- C: 나 혼자 네이버 쳐보고 다 일일이 알아봐야 하고요(참여자 7). 학부모 동의 받아야 하고, 전화해야 하고, 점심시간에 주로 해야 하고...(참여자 3)
- D: 높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전문상담교사보고 연계사업을 기획하라고 하니 어색했어요(참여자10).
- E: 경력이 있는 전문상담교사들은 다 알아서 해요(참여자 23). 초임인 곳은 아무것도 모르니 연계를 할 수도 없죠(참여자 15).

2.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담자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연계사업의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상담 연계사업 패러다임 모형 중 인과적 조건과 맥락적 조건에 정리되어 있다.

가. 인과적 조건 : 연계의 필수화

학교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연계사업의 인과적 조건은 연계의 필수화로 정리되었다.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지각하는 요인으로서는 학교상담기관의 인적자원 제한(A)·물적 자원 제한(B), 학생의 문제가 심각하고 다양해짐(C) 등이 있다. Wee 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인력이 근무하고 있고, Wee 센터에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서 학생상담에 필요한 전문분야를 모두 충족할 수가 없다. Wee 클래스에는 표준화 검사, 임상진단에 필요한 검사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등 물적 자원의 한계 또한 연계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요인을 제공한다.

- A: 상담은 우리가 하죠. 연계를 할 때는 병원,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참여자 12).
- B: Wee 센터에는 임상심리사와 표준화 검사가 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검사했어요(참여자 11).
- C: 손목에 깊이 굽힌 자국이 많은 학생들, 자살시도 위험이 있는 학생들이 오면, 뭘 일 날까봐 긴장이 돼요(참여자 16).

나. 맥락적 조건 : 연계하라는 압박과 장애

상담자들이 지각하는 연계사업의 맥락적 조건은 연계하라는 압박과 장애로 정리되었다. 연계

하라는 압박은 돌봐야 할 학생 수가 너무 많고(A), 상담자가 독자적 사례관리에 자신이 없을 때(B), 학교가 전문상담인력을 불신할 때(C) 강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수업결손, 학교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것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학교측의 망설임(D)과 복잡한 행정절차, 비밀유출, 학교측에 자녀의 문제 알려짐, 비용문제로 인한 학부모의 망설임 등 연계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양가감정(E)으로 인해 연계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 A : 저희 학교 학생이 1,640명인데 혼자 카바해야 해요(참여자 5). 솔직히 화장실 갈 시간이 진짜 없어요. 업무 하나가 내려오면 관련된 예산, 서류, 공문이 줄줄이 세트로 내려와요(참여자 22).
- B: 저도 이런 문제를 다룬 적도 없고, 성공사례도 없었으니깐 얼른 보내게 되는 거죠(참여자 17).
- C: 학교가 상담사를 못 믿는 거죠. 일 생기면 책임질거나, 빨리 연계해라 그러죠(참여자 8). 일단 전문상담사를 못 믿어요. 저는 교사가 아니고 전문 상담사잖아요. 무슨 일만 터지면 학교에서 책임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연계하라고 그래요(참여자 11).
- D: 학교 일이 교육청이나 외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들, 윗분들이 싫어하시더라고요(참여자 21). 학교장이나 담임입장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거는 수업결손도 많고요(참여자 12).
- E: 이거 파일 어떻게 보관하나 연계 파기하나 왜 3년이나 보관하나 학교에다 말하지 말아달라 왕따당한다... 학교에서 담당기록 다 돌려달라. 그것들 다 지워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참여자 12).

3. 중심현상이 연계사업에 미치는 영향

상담자들은 연계의 중심현상을 경험하면서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대응과정 속에서 현재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었다.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차례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재적 조건 : 연계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학교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중심현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연계과정과 연계 후 효과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였다. 연계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히고(A), 연계자원 정보가 부족하여 연계를 하고 싶어도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B), 막상 연계를 해봤더니 연계기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실망스러웠던 점(C), 연계사업을 의뢰하는 기관과 의뢰받는 기관 간에 사례와 개입내용에 대한 공유가 어려워서 동일한 서비스만 반복적으로 제공했던 것(D) 등은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연계사업의 효과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그러나 연계를 하고 나면 일손을 덜었다는 후련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 후에 학생이 적절한 개입을 받아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E).

- A: (학교가) 보내라고 했다가, 학교 정보 나가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학부모도 꺼리구요(참여자 17).
- B: 의뢰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모르고, 1388이나 정신보건센터가 야간에도 된다는 것을 몰라요(참여자 7).
- C: 연계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상담 수준이랄까? 이런 게 조금은 의심스럽다는 거죠. 학부모들도 돈만 날렸다고 불평하고요(참여자 10).
- D: 자연재해로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 위클래스로 보냈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위센터로 보냈고, 위센터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에 보냈는데요. 그러다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내게 의뢰되었는데, 나도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또 묻게 되고요. 이 아이는 덮어주는 사람도 없이 그 이야기를 4번 5번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달라고 전화했더니 개인정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고. 상담기록은 비밀이다 이래버리고... (참여자 12).
- E: 위클래스에서는요 리퍼를 하고나면 솔직히 마음이 후련해져요. 솔직히~ 근데 그거를 위센터가 다 가져간단 말이죠. 미안한 일이지요(참여자 21). 학생들이 안 가서 의사를 학교로 불렀는데, 만족도가 아주 좋았어요(참여자 6).

나. 작용/상호작용 : 다양한 연계활동

학교 상담사들은 저마다 각자가 처한 조건에 대하여 나름대로 대응하며 다양한 연계활동을 하고 있었다. 경력과 훈련이 충분한 전문상담사는 주도적으로 연계사업을 시도하였고(A), 경우에 따라서는 Wee 프로젝트 이외의 여러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응팀을 구성하기도 하는 체계적인 기획을 시도하였다(B). 그러나 경력과 전문적인 훈련이 부족한 상담자는 다루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례를 아무런 시도도 해보지 않은 채 '떠 넘기기'식으로 연계하였고(C), 업무 과다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연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D).

- A: 아무데나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는 안되는 게 많아요. 어떤 기관은 자살이 맞고, 어떤 곳은 우울이 맞고, 어떤 곳은 물질지원을 잘하고, 나름대로 영역이 있더라고요. 보낸다고 다 해결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걸러서 보내고 있어요(참여자 12).
- B: 위센터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뭐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뭐를 하시고 다른 기관에서는 뭐를 하시고 뭐를 하세요 라는 공문을 찍 뿌렸어요. 호응이 좋더라고요(참여자 10). 임상심리사가 검사한 결과 자료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의사선생님만 만나면 돼요. 협약이 되어있어요(참여자 2).
- C: 무조건 벗어나려고 너무 단순한 문제도 연계를 해버리고 하니까 아쉬움은 많지요(참여자 19).
- D: 저희는 의뢰를 받는 편인데요. 위클래스 선생님이 너무 시도하거나 뭔가 노력도 없이 무조건 센터로 의뢰해서 잘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 버리세요. 학교 안에서 다뤄줘도 되는 부분임에도 책임을 조금 회피하는 선에서 연계를 하시고...(참여자12).

다. 결과 : 효과적인 연계체제 구축 희망

학교상담사들이 경험하는 연계사업의 현재 결과는 문제가 심각하거나 여러 분야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례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 이들의 논의는 연계를 하느냐 마느냐의 선택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연계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A). 연계를 효과적으로 하고나면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것도 경험하였다(B). 이러한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문서화된 연계매뉴얼(C), 사례 공유(D), 전담기관과 전담자(E), 예산배정(F)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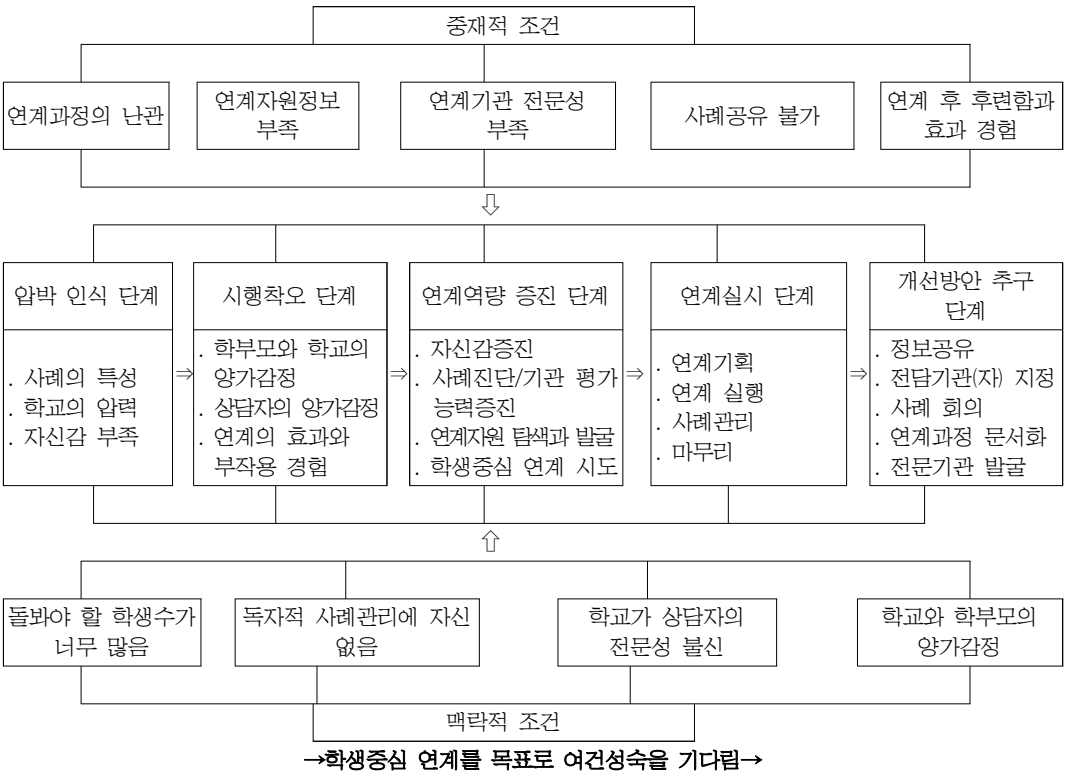
- A: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운 연계 계획서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 기관들이 동의해 주니까 제 생각에도 뿌듯했구요. (연계가) 필요하다는 건 다 알죠(참여자 10).
- B: (Wee센터)임상심리사의 검사결과를 병원에서 인정하고 참고하여 치료까지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어요(참여자 2).
법률기관, 경찰청과 기관간 연계를 하여 효과적이었다고 칭찬 받았어요.
- C: 사례담당 선생님이 의뢰사유를 간단히 적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심리검사를 첨부한다거나 하면 그 쪽에서도 책임감을 좀 느끼고 진행하는 게 보여요. 의뢰양식을 사용하면 책임이 명확히 정해져요(참여자 1).
- D: 사례공유를 하려면 회의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필요한 건 다 알지만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잘 안 이루어져요. 업무시간으로 빼주면 좋을 것 같아요(참여자 18).
- E: 어떤 네트워크를 관할하는 기관이 딱 있고, 담당자가 있어서 그런 한곳만 있으면 제가 연락해서 뭐 없나요 물어볼 수도 있고...(참여자 9)
- F: 위탁기관이 정해져있고, 일 년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경제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고요. 학부모님들한테 편안하게 설명 드리고, 되는 만큼 진행할 수 있어요(참여자 13).

4. 연계사업의 과정

학교상담자들의 연계경험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998)의 제안을 참고하여 패러다임 모형의 각 요소 중 주로 작용/상호작용에 등장하는 범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였다. 작용/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범주를 연결하고, 중재적 조건과 맥락에 해당하는 범주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과 복잡한 상호관계의 발전양상을 도식화 하였다(그림 2).

학교상담의 과정 분석은 하나의 연계사례에 대한 경험과정이라는 미시적 수준과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여러 사례에 해당하는 거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연계과정은 거시적 수준에서 연계압박 인식 단계, 시행착오 단계, 연계역량 증진단계, 연계실시 단계, 개선방안 추구 단계의 5단계로 정리되었고, 그 중 네 번째 단계인 연계실시 단계에

는 연계기획, 연계실행, 사례관리, 마무리로 정리되는 미시적 연계과정이 포함되었다. 여기에서 다섯 단계가 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예컨대, 시행착오단계, 연계역량 증진단계, 연계실시 단계, 개선방안 추구단계 등은 동시적으로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계가 이루어지는 대략의 상황을 요약하면, 압박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상담자의 준비가 덜 된 채로 시행착오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좌절도 하지만 역량이 증진되고, 역량이 증진됨에 따라 기획-실행-관리-마무리로 구성되는 주도적인 연계가 가능해지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다.



[그림 2] 학교상담자의 연계과정 경험

가. 연계 압박 인식단계

연계사업에 대하여 학교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는 연계해야 한다는 압박을 인식하는 것이다. 연계 압박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사례의 특성으로서 비행, 우울, 자살, 자해, 빈곤, 가정문제 등 학생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개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학교의 압력으로서 이는 교사나 학교 행정가들이 전문상담인력의 역량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는 돌파야 할 사례수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는 자신감 부족으로서, 상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상담역량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사례를 혼자 진행해 나가는데서 불안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나. 시행착오단계

상황에 밀려 연계를 시도하면서 상담자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에 직면한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연계에 대한 학부모와 학교 측의 양가감정으로 인한 판단의 혼란이다. 학교는 연계를 권유하면서도 비밀유출과 기타업무에 미칠 부담을 염려하여 연계를 꺼리는 양가적인 모습을 보인다. 학부모들은 도움 받기를 원하면서도 까다로운 연계절차를 밟기 번거롭고, 자녀에게 오점이 될까봐 연계받기를 꺼린다. 상담자들은 학부모와 학교의 양가감정을 보면서 의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한다. 둘째는 연계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양가감정이다. 연계 없이 혼자서 해결해내고 싶은 마음과 혼자 다루기 자신없고 긴장되는 마음간의 갈등이다. 셋째는 연계의 효과와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이다. 의료지원·법률지원·경제적인 지원 등 학교에서 해주기 어려운 서비스에 연계하고 난 뒤 뿌듯함과 일손을 덜어 낸 후련함을 느낀다. 그러나 연계 후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부작용은 믿고 맡겼던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성의 없고 무능하게 개입할 때, 기관홍보 때 유심히 봐두었다가 사례를 의뢰하였는데 정작 사례를 의뢰할 때는 문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할 때, 내담자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 의논 하려고 하는데 논의에 진지하게 응해주지 않을 때 등 여러 상황에서 경험되었다.

다. 연계역량 증진단계

학생 상담의 경력이 쌓이면서, 상담자들의 연계역량도 증진된다. 우선 자신에게 사례에 개입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자신감이 증진된다. 여러 사례들을 다루면서 각 사례에 연계가 효과적일지, 어떤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요청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도 높아진다. 지역사회 연계자원들에 관심을 갖게 되며,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연계 대상기관이나 전문가를 발굴한다. 연계기관이나 전문가가 명성에 맞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평가기관에 대한 정보를 모아서 다음 사례에 대한 연계가능성을 결정해 놓기도 한다. 학교상담 현장에서 본인의 입지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다른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상호 공조 체제를 형성한다.

점차 학생의 필요에 충실한 학생중심 연계가 본격화된다. 학생의 상황을 기준으로 연계기관

이나 전문가 팀을 구성하기도 한다. 기관이나 전문가의 홍보문안에 있는 서비스 목록만을 보고 내담자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내담자의 특정문제를 특정기관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실제적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연계를 주도한다. 이러한 연계역량 증진단계를 거치면서 상담자들은 성공적인 연계 사례를 경험하고 보람을 느끼는 기회가 많아진다.

라. 연계 실시 단계

연계실시 단계는 개별 사례에 대한 연계실행 단계인 연계기획, 연계 실행, 사례관리, 마무리로 구성된다. 연계기획은 해당 학생의 위기 내용과 정도를 파악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을 조합하며, 외부기관이나 전문가 연계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연계 실행은 연계기관과 접촉하여 연계기관이 학생에게 개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상담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연계기관에 불편 없이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상대기관의 전문가와 충분히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사례관리를 위해서 학생이 연계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동안 상담자는 학생을 둘러싼 조력체계를 정비하면서 학생의 진전정도를 파악한다. 마무리는 연계기관의 개입이 종료되고, 학생이 학교에 재적응하여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상담자는 연계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개입내용과 진전정도에 대한 사례보고를 받고,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연계실시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연계 사업 수행방식에 개인적인 차이를 보였다. 본인의 연계역량에 자신감을 가진 참가자는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연계를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었다. 학교나 학부모의 판단을 경청하기는 하지만 학생의 문제 해결에 연계사업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나름의 독자적인 판단이 서면, 학교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을 설득하는 등 주도적인 연계를 시도하였다. 또한 많은 연계 경험을 통해, 구두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연계나 사례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은 연계사업은 투자 시간이나 노력대비 효과가 낮아진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기존 자료에서 찾아내거나 스스로 만든 연계양식을 사용하여 연계과정을 문서화시키고 사례를 공유하고자 통화나 대면 회의를 시도하는 등 나름의 체계적인 단계를 설정하여 일하고 있었다.

아직 경력이 부족하거나 연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마련되지 않은 상담자는 많은 사례가 몰려서 혼자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급하게 수십 사례를 한꺼번에 의뢰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상대기관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연계를 함으로써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쳐질 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기보다는 불안에 쫓겨 자신보다 전문성이 우수해 보이는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내담자를 의뢰해 놓고, 막연히 '잘 되겠지'하는 기대를 하였다.

다. 개선방안 추구단계

연계가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은 경력자나 초보자에게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같은 관할구역 내에 있는 Wee센터가 Wee클래스와 연계기관 정보를 공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다음으로는 연계를 전담하는 기관과 전담자를 지정하는 것이었다. 연계가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례마다 문제의 종류와 심각성에 차이가 있는데, 그 때마다 개별적으로 연계를 시도하다보면 업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최적의 연계과정을 찾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자원 중에서 사례의 특징에 맞는 연계망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전담기관과 전담자가 Wee 센터에 지정되어 있기를 원하였다. 다음은 연계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이었다. 연계사업에서는 한 명의 내담자에게 여러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이 명확하게 문서화되어 참여하는 상담자나 내담자 모두 내담자가 현재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고, 사례별로 연계과정을 명확하게 점검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하게하기 위해서는 문서화 과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사례정보를 안전하면서도 개방적으로 공유하고, 사례회의 또한 업무로 인정받게 될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으로는 전문기관을 발굴하는 것이었다. 내담자를 믿고 맡길만한 전문기관과 전문가 목록을 확보하는 것 또한 연계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며,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관할구역에 많이 생겨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이 개방코딩, 축코딩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연계경험을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이 학생상담 현장에서 경험하는 내용과 연계사업의 과정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학교상담 현장에서의 연계경험을 포괄하는 핵심범주를 찾고자 패러다임 모형을 재검토하고 개방코딩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다. 핵심범주는 학생 상담에서의 연계과정의 요점과 변화를 표현하며, 추상성이 충분하여 이론적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박승민 외, 2012). 이에 FGI 각 집단마다 이루어진 이야기 개요를 작성하고 연구의 중심현상과 범주 간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이러한 기술을 분석적으로 표현하는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쳐, 집단별 이야기를 관통한다고 여겨지는 주제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연구자가 찾아낸 학교상담 연계과정의 핵심범주는 **‘학생중심 연계를 목표로 여건성숙을 기다림’**이다.

학생중심 연계는 학생의 문제해결과 성장에 필요한 자원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사례마다 연계망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소개를 중심으로 하는 기관중심 연계사업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서비스를 학생 친화적으로 선별하고 구성하는 것이다. 즉, 사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역량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현재 이 내담자에게 이 방식으로 연계하는 것이 내담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하는 전문가로서의 선택에 의한 연계를 말한다. 학생중심 연계에 대한 희망은 경력이나 역량,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선호도와 무관하게 연구 참여자 모두가 수긍하는 방식이었다. 연계를 한다면 그것은 학생중심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건성숙을 기다림은 현재 학교상담 현장에서 연계사업은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여 학생중심 연계를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이 구비됨으로 인하여, 학생들을 위한 연계를 하고 있다고 확신할 만한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자들이 희망하는 상황은 연계전담 기관과 전담자의 명시적 지정, 상담자 자신의 전문적 성장, 학교가 상담자의 업무 존중, 사례공유와 회의참여 인정, 연계기관과 전문가의 전문성 신장, 연계과정의 문서화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계가 필요한 사례가 있을 때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학생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만큼 정련된 연계지침이 마련되고 기관 간에 통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의 성숙을 기다리는 마음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항이었다.

IV. 논의

이 연구는 점차 심각성과 다양성이 증가되는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대응서비스인 학교상담의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연계사업의 내용과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3회에 걸친 FGI 면접에 23명의 학교상담자들이 참여하였다. 전사된 면접 자료를 근거이론의 자료분석 방법에 따라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쳐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상담자들이 학교상담에서 경험하는 연계의 중심 현상은 '주저하면서 연계를 실행함'이었다. 연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연계과정과 효과에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였다. 연계를 안 하자니 혼자 감당할 수 없고, 추진하자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일손과 심리적 긴장을 덜기 위해 연계를 실시하면 생각보다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런 갈등 속에서 상담자는 찾아오는 내담자를 맞아 상담을 잘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안에 대하여 연계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학교상담기관이 해야 할 일인가하는 낯선 마음도 들지만, 상담자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들에 대하여는 결국 연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이러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은 '연계의 필수화', 맥락적 조건은 '연계하라는 압박과 장애'였다. 심각한 사례들이 학교상담실로 의뢰되는 현실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학교상담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다. 돌봐야 할 많은 학생, 상담자의 자신감 부족, 상담자에 대한 학교 측의 신뢰 부족 등은 연계하라는 압박을 주는 맥락적

조건이었으나 한편 비밀누설에 대한 학교와 학부모의 불안, 비용문제, 복잡한 행정처리 등은 연계 추진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이러한 조건과 중심현상 속에서 상담자들은 연계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경험하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아 다양한 연계활동을 펴고 있었다. 연계활동의 질에 차이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조건은 상담자의 경력과 역량이었다. 상담자 역량에 따라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연계가 가능한가 하면 떠넘기기식이나 의존적 연계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자신이 어떤 수준의 연계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라는 공통된 연계 양식은 '학생중심 연계'였으며, 학생중심 연계를 할 수 있도록 내외적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생중심 연계는 학생 한명 한명을 대상으로 사례마다 독특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진단한 후 이루어진다. 학생중심 연계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계 사례마다 연계 기획, 연계 실행, 사례관리, 마무리의 4단계를 충실히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지기 위해 상담자들은 몇 가지 구비되어야 할 조건을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지역별로 연계 전담기관(자) 지정, 상담자 자신의 전문적 성장, 학교가 상담자의 업무 존중, 사례공유와 회의 참여 존중, 연계기관과 전문가의 전문성 신장, 연계과정의 문서화 등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전담기관과 전담자를 지정하여, 사례별 연계자원 구성을 주도하고 그 실행과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금명자 외(2005), 이민희(2006), 이병환(2010)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방안 연구들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연계사업이 내담자의 문제 진단과 지역사회 자원을 폭넓게 아우르는 일이기 때문에, 한 명의 학생을 위해 폭넓은 자원을 동원하여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하려는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과 전담자가 있어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계사업이 필요할 때, 민고 자문을 구하며, 내담자가 연계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해매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연계과정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전담기관과 전담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학교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연계사업이 주요 주제로 다뤄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학교상담에서는 연계할 수밖에 없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연계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중심현상은 '주저하면서 연계를 실행함'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연계사업에 대한 주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전문상담교사 업무분석에서는 연계사업이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고 있고(유순화, 류남애, 2006), 학교상담 현장 조사자의 90% 이상이 연계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임은미 외, 2013), 연계사업의 필요성과 장애요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금명자 외, 2005; 박효정, 2006; 이민희, 2006), 상담자 교육과정에서 연계에 대한 지침이 아직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유형근, 2007; 김인규, 2009). 그래서 연구

참여자들 중에는 현장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관간 연계기획과 실행과정을 주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내적인 보람과 외적인 인정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닌 것 같은 낯설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에 학교상담자 교육과정에서 연계사업이 주요 주제로 다뤄지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사례 등을 통해 연계과정에서 상담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경력과 전문성이 연계사업의 자신감과 주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황적으로 열악한 경우에도 경력이 많은 상담자는 지역사회 자원을 세부적으로 알게 되고, 내담자를 진단할 수 있는 힘이 축적되어, 연계사업에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임할 수 있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을 예측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반면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내담자 심층진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연계사업을 해내지 못한 채 자신의 짐을 덜고자 하는 시도에 급급하여 연계를 남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연계사업이 꼭 필요한 학교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담자들이 전문성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그러나 현재 학교 상담자들은 계약직으로서(김인규, 2012), 1년 미만 동안만 한 기관에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전문 인력이 진입하려 하지 않고, 소속기관에서 경력을 쌓을 수 없다. 이에 1년 단위 계약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선발될 수 밖에 없는 학교상담인력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상담인력의 수적 부족의 문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상담인력의 수적인 부족 문제는 학교에서 상담자에게 요구하는 업무와 관련지어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상담, 집단상담, 각종 프로그램, 기타 행정업무를 고려하여 한 명의 인력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상담자와 함께 조절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Wee 클래스나 Wee 센터의 업무는 상담자의 역량이나 시간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지는 경향이 있다. 각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아예 일을 주지 않거나 어떤 학교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일을 준다. 특히 국가정책이 정해지면, 학교폭력, 정서행동특성 전수조사 사후개입 등의 사안이 무조건 Wee 클래스로 이관되는데, 이때 전문상담인력의 역량이나 인원수가 고려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이수한 교육내용과 요구받는 역할간의 불일치, 역할모호성과 이로 인한 비능률 및 스트레스에 대하여는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이상민, 오인수, 서수현, 2007; 이현아, 이기학, 2009).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의 양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연계를 시도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신중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한다. 연계사업이 적절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어떤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 특정 학생의 어떤 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상대방 기관이나 전문가와 토의를 거쳐 착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상담 인력을 선발할 때는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해야 하며, 선발된 인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져야 한다. 학교 상담실에서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가 일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는 교원임용고시를 거쳐서 선발되었고, 전문상담사는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된다.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담기법과 실무경험을 쌓아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Wee 클래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력이 부족한 초보자가 대거 등장하였다(김인규, 2012). 상담업무의 질은 상담자에 의해 결정되며, 본 연구에서도 연계사업 각 과정의 질은 상담자의 경력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학교 상담인력 선발시에 교육 경력이나 실무경력 등을 통한 전문성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선발 후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연수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연계과정의 진행절차를 문서화하여, 개별 학생들이 받고 있는 연계사업의 내용과 과정 및 비밀보장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계사업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는 양가감정을 갖고 있었다. 학부모는 비밀유출로 인한 자녀의 학교적응과 미래에 미쳐질 부작용을 우려하고, 학교는 학생에게 미쳐질 영향과 학교의 불명예를 걱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러한 역동에 상담자들도 휘말려서 해당 사례의 연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간의 사례정보공유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내담자 비밀보장은 상담자 교육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담윤리로 다뤄지고 있으며(한국상담학회, 2011; Corey, 2009),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는 사안이다(법제처, 2013). 상담자는 법과 윤리를 숙지하고 준수하되, 사례 진행의 효율성을 함께 기할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나 학교의 불안을 공감하면서도 필요한 만큼의 사례공유는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율적 판단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절차가 문서화되어 있으면, 아직 성장 중에 있는 상담자도 어느 정도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연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장 효과적이고도 안전한 사례공유 방법으로 기관 또는 전문가 간 사례회의를 들었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금명자 외, 2005; 박효정, 2007). 비록 연구 참여자들이 사례회의 참여 시간 확보 가능성에 대하여는 난색을 표현했지만, 전문가 간 사례회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비밀보장을 유지하면서도 연계사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다.

이 연구는 학생의 문제에는 학교상담인력만의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되기 어려운 위기상황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다른 전문자원까지 동원하여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연계사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상담의 현장에서 상담자들이 경험하는 연계의 현실을 상담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정리하였다는 데 있다. 선행 연구들 중 본 연구와 가장 근접한 연구로서 류진아, 권혜수(2008)는 청소년상담사가 학교에 파견되어 학교 안에서 연계사업을 주도하면서 위기청소년의 가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학교적응 증진 및 비행화 방지에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를 수행하였었다. 금명자 외(2005)는 지역 사회의 청소년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관에서 학교폭력 사례들에 대한 연계사업을 담당할 때 필요한 요건들을 밝혀주었다. 그러나 청소년상담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도하는 연계사업과 학교상담자가 학교 중심으로 시행하는 연계사업에는 차이가 있어서, 학교상담 장면에서의 연계사업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학교상담 장면에서 벌어지는 연계현황과 개선방안을 Wee 센터와 Wee 클래스에서 종사하는 상담자들인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진술을 통해 밝힘으로써, 현재 학교상담이 당면하고 있는 연계사업을 조명하였고, 이로 인해 상담자 교육에 연계사업이 본격적으로 다뤄져야 할 필요성, 연계사업 진행에서 전문성과 경력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자신감의 중요성과 대응방안, 연계사업에 대한 학부모·학교·상담자의 양가감정과 대응방안 등 학교상담 고유의 현안문제와 대처방안들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학생중심의 연계가 학생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진정한 '학생 중심'의 연계사업이 될 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차후 연구를 통해 연계사업을 경험해 본 학생들의 시각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Wee 클래스 종사자와 Wee 센터 종사자가 함께 면접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Wee 센터와 Wee 클래스 각각의 차이가 명료하게 정리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각각의 독특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차후 연구가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진령, 손현동, 조은문(2005 a). 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3(2), 61-74.
- 강진령, 손현동, 조은문(2005 b). 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분석. **상담학연구**, 6(4), 1351-1368.
- 구본용(2005). **위기(가능)청소년지원모델 개발연구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 한국청소년상담원.
- 권해수, 김현정(20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연계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프로그램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261-290.
- 권해수, 류진아(2007). 학교 기반의 위기청소년 통합지원모형 개발. **상담학연구**, 8(3), 1205-1221.
- 금명자(2007).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예상의 차이. **한국상담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43-861.
- 금명자, 오혜영, 조은경, 백현주, 신주연(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동일, 윤현선, 서창원, 최수미(2008).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제(CYS-Net) 운영평가 연구. **상담학연구**, 9(4), 1769-1783.
- 김인규(2009). 전문상담교사제도 발전방안 연구. **상담학연구**, 10(1), 517-534.
- 김인규(2012). 학교상담 발전방안 연구. **교육종합연구**, 10(3), 235-256.
- 류진아, 권해수(2008). 학교 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연계 학교상담모형 효과연구. **교육방법연구**, 20(1), 131-153.
- 박미나(2012). 학교상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Wee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학지사.
- 박효정(2006).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08-01.
- 박효정(2007).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원체제 모형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7-9-1.
- 법제처(20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1조**. available at <http://www.law.go.kr>.
- 오경자, 배주미, 양재원(2009).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중체계치료적 접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개입 효과성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7(1), 1-17.

- 유순화, 류남애(2006). 제 1기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직무기대 조사연구. **상담학연구**, 7(3), 899-915.
- 유형근(2007). 전문상담교사 양성을 위한 한·미 교육실습체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7(2), 59-80.
- 이민희(2006).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천적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06-08.02.
- 이상균(2002). 학교와 사회복지의 접맥, 그 가능성의 모색 : 학교연계 서비스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 27-52.
- 이상민, 오인수, 서수현(2007). 한국적 학교상담 모형 개발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학교상담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19(3), 539-567.
- 이성희(2000). 지역사회중심의 청소년문제해결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이병환(2010). 학교폭력 대처를 위한 지역유관기관의 지원체제 정립과 활성화 방안. **교육문화연구**, 16(2), 45-73.
- 이현아, 이기학(2009).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스트레스요인과 직무만족도, 심리적 소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1), 83-102.
- 임은미, 박진희, 강혜정, 김혜영(2013). **Wee 프로젝트의 위기학생 지원 효율화를 위한 연계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상근, 김동민, 오인수, 신을진, 김인규, 이일화, 이석영, 최보미(2011). **Wee 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상담심리학회(2009). **상담전문가 윤리강령**. 한국상담심리학회. available at <http://www.krcpa.or.kr>.
- 한국상담학회(2011). **윤리강령**. 한국상담학회. available at <http://www.counselors.or.kr>.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3). 1993~2013.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년사.
- 허승희, 박성미(2004). 초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학부모, 교사 및 학교 행정가의 요구분석. **초등교육연구**, 18(1), 19-38.
- Bloor, M. , Frankland, J., Thomas, M., & Robson, K.(2001). *Focus Groups in Social Research* London: Sage.
- Clinton, H. R.(1996). *It takes a village and other lessons children teach us*. NY: Simon & Schuster.
- Corey, G.(2009).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8th ed.*. Cengage Learning.
- Cox, A. A. & Lee, C. C(2007). Challenging educational inequities: school counselors as agent of social justice. In Coutland, C. L.(2007). *Counseling for social justice, 2nd ed* 3-14. ACA.
- Guba, E. G., & Lincoln, Y. S.(1981). *Effective evaluation*. CA: Jossey-Bass.

- Gysbers, N. C., & Henderson, P. A.(2001). Comprehensive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A rich history and a bright future.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4*, 246-256.
- Lai-Yeung, S W. C.(2014). The need for guidance and counselling training for teacher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3*, 36-43.
- Lalor, K., O'Dwyer, S., & McCrann, D.(2006). Review of a community-based youth counseling service in Ireland.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8*, 325-345.
- Lewis, J. A.(2011). *Community counseling : A multi-cultural social justice perspective, 5th ed* Brooks/Cole, Cengage Learning.
- Lim, C., & Adelman, H. S.(1997). Establishing school based collaborative teams to coordinate resources: A case study. *Social Work in Education, 19*(4), 266-278.
- Morgan, D. L.(1998).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역)(2007).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그룹-질적연구방법 총서 6**, 군자출판사.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Thousand Oaks, CA:Sage.
- Sue, D. W., & Sue, D.(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John Wiley & Sons.
- Tsai, M. H., & Ray, D. C.(2011). Children in therapy: Learning from evaluation of university-based community counseling clinical service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5*, 377-383.

* 논문접수 2014년 2월 11일 / 1차 심사 2014년 3월 11일 / 게재승인 2014년 3월 19일

* 임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상담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진로상담, 다문화상담, 학교상담이다.

* E-mail: tgeunmi@jbnu.ac.kr

Abstract

School Counselors' Experience about Coordination Activity Process in School Counseling

Lim, Eun-Mi*

This study tried to explore the contents and process of the coordination activities which school counselors experienced in the field. For these purposes, the researcher performed 3 FGI(focus group interview)s with 23 school counselors who worked for school counseling.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by grounded theory. Open coding showed that there are 131 concepts, 58 sub-domains, 18 domains in school counselors coordination activities. Paradigm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Central phenomenon was 'coordination activities are very important but reluctant to undertake', causal condition was 'coordination activities are essential in school counseling', contextual condition was 'pressure and barrier about coordination activities', mediating condition was 'experiencing the beneficial and adverse effects of coordination activities', action/reaction was 'various coordination activities', result was 'hoping the effective coordination system.' Results from the selective coding showed 'waiting the condition good enough for student centered coordination system.' The processes of coordination activities consisted in the aware of the coordination activity stage, the trial and error stage, the improving coordination competency stage, the performing coordination activity stage, the pursuing improvement plan stage. Finally, with summarizing meaningful results, the researcher discussed the effective methods for establishing student centered coordination system.

Key words: school counseling, coordination activity, grounded theory, focus group interview